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53차 농정시장작업반(APM)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물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2011년 2월 28일(월)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3월 1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53차 APM 회의참석	2박 2일
3월 2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53차 APM 회의참석	3박 3일
3월 3일(목) 오전	OECD Conference Centre	53차 APM 회의참석	3박 4일
3월 3일(목) 오후 ~4일(금)	파리→인천	귀국	3박 5일

* 출장비는 농림수산물부에서 지원함.

4. OECD 제53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의제목록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3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urkey	TAD/CA/APM/WP(2011)1
Item 4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European Union	TAD/CA/APM/WP(2010)26/REV1
Item 4bis	Long term trends in policy performance	TAD/CA/APM/WP(2010)19/REV2
Item 5	Review of policies in the 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 Scoping paper	TAD/CA/APM/WP(2011)2
Item 6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ynthesis report	TAD/CA/APM/WP(2011)3
Item 7.a	A strategic framework for strengthening rural incomes	TAD/CA/APM/WP(2010)42/REV1
Item 7.b	Stabilisation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2007-08 food crisis	TAD/CA/APM/WP(2010)44/REV1
Item 7.c	The use of input subsidies in developing countries	TAD/CA/APM/WP(2010)45/REV1
Item 8.a	Aggregate model analysis of exogenous risk and price variability	TAD/CA/APM/WP(2010)31/REV1
Item 8.b	Synthesis report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TAD/CA/APM/WP(2011)4
Item 9	Work on risk management in 2011-12: Scoping paper	TAD/CA/APM/WP(2011)5
Item 10	Food Chain Analysis Network: summary of inaugural meeting and work plan proposals	TAD/CA/APM/WP(2011)6
Item 11	Waste management in the food chain: scoping paper	TAD/CA/APM/WP(2011)7
Item 12.a	Roadmap for 2011-12 activities	TAD/CA/APM/WP(2011)8
Item 12.b	Thin markets and price volatility: Draft report	TAD/CA/APM/WP(2011)9
Item 12.c	Private financial sector investment in agriculture: case studies	Oral report
Item 13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AKS) Conference on 15-17 June 2011	TAD/CA/APM/WP/RD(2011)11
Item 14	Green growth strategy for food and agriculture	Oral report
Item 15	France's Presidency of the G20	Oral report

5. OECD 제53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결과

□ 핵심요지

- “EU 농정개혁평가, 농업위험관리종합보고서” 등을 논의하여 공개를 결정하였으며, “2011-12년도 농업위험관리연구, 식품체인의 식품낭비” 등에 대한 연구작업계획서가 토론되었음.
- 농식품 녹색성장전략보고서 초안에 대해 5월 각료이사회 이후로 공개를 연기하자는 의견(프랑스), 농업 녹색성장지표부분을 추후 수록하자는 의견(스위스) 등이 제시되었으며, 사무국은 국가별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 합의에 도출하겠다고 답변함.
- 한편, G20 관련하여 사무국은 농산물 시장변동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3월 중순경에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함.

□ 관찰 및 평가

- 농업녹색성장전략보고서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사무국의 초안수정작업내용을 잘 관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황으로는 녹색성장과 시장기능 원활화(well-functioning market) 및 농업보조금 등 핵심문안(Para 7)에 대한 조율 및 컨센서스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찰됨.
- OECD 사무국의 “품목가격안정을 위한 국제품목협약 평가보고서” 등은 공공재고의 가격안정 기능에 회의적인 입장인 바, G20 보고서 논의준비과정에서 이 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
- “Thin Market(얇은 시장)과 가격변동성 상관관계” 초안보고서 논의에서 아국의 선도발언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가격변동성 완화와 연계하는 결

론”을 삭제토록 하는 결실이 있었음(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에서 동조).

- 각종 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3월 15일까지 적기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15-17일에 개최될 예정인 농업지식시스템(AKS) 회의에 대한 아국의 관심사안을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 한편,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유관연구기관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 의제별 주요내용

Item 3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보고서 : 공개 승인

- 전기 APM에서 논의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추가로 향후 터키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함.
- 터키는 이번 평가작업을 통해 자국 농정에 대한 OECD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가와 제안에 사의를 표함. 또한 터키대표는 자국은 현재 국제 규범에 적합한 농정개혁을 지속하는 중이며, 기후변화, 식량안보, 가격변동성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을 유지하고, 식품 안전, 국민건강, 동식물위생 등의 정책목적에 부합한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 미국, 프랑스, 스페인, EU 등은 대체로 보고서의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보완사항으로, 스페인은 최근 직접지불제를 폐지하고 생산과 연계된 보조정책으로 회귀한 터키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EU는 축산부문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보완적인 사항은 서면절차를 거쳐 반영한 다음,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기로 함.

Item 4 “EU의 농정개혁 평가” 보고서 : 공개 승인

- 전기 APM에서 보고서의 초안이 제시되었고,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가 상정됨. 다수 회원국은 간단한 오류의 시정이나 표현의 수정을 제안하면서 보고서의 공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EU와 프랑스는 자세한 보완사항들을 제시하면서, 보고서에 이들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사무국은 다음날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함.
- EU는 농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하며(improve targeting of support), 보고서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를 요구함.
 - 특히, 농업보조정책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일반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이 아닌 농가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일반정책(경제·환경·소득정책)의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함. 또한 세부적으로는 정책대상을 농가(Farming household)와 농민(farmer)에 대한 보조로 선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별 정책수행비용(transaction costs)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책대상과 목표(targeting)에 따라 최적의(cost-effective) 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EU는 농업정책이 경제전반에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upstream and downstream)가 EU 회원국마다 다르며, 그 결과 일부국가에서는 농촌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EU는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에서 소매유통(retail)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EU의 농업정책이 소매분야에 대해 중점

을 두어야 하며, 보고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임.

- 프랑스는 농지에 대한 수급권과 농지이전 관련 규정의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요구함. 또한 생산과 비연계된 직접지불이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가경쟁력을 하락하게 한다는 평가에 의문을 표시함.
- 프랑스는 자국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EU 평균인 15% 보다 큰 수치이고, 보고서에서 농업이 EU 농촌지역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농업생산을 포함한 농식품시스템의 고용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함.
- 스페인은 가격변동성은 전반적인 농업부문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소득안정망의 구축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또한 DDA에서 잠정합의된 수출보조금지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고서에서 EU의 장기예산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비중의 감소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함.

Item 4 bis “정책성과의 장기적 추세” 보고서 : 공개 승인

- 국가별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PSE 이외에 정책평가 모형(PEM)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지표들을 적용한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로서, 전기 회의에서 새로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가 유보된 다음 서면절차를 거쳐 수정된 최종보고서가 이번 회의에서 재논의됨.
- 다수 회원국은 보고서의 공개를 지지하였으나 EU, 프랑스, 일본 등은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 개발된 지표들이 기존의 PSE를 대체

하여 각국의 농정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

- 새로운 지표를 적용한 결과, 정책 효율성에서 EU는 높은 반면,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EU는 새로운 지표를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의 해석과 평가에서는, 사용된 분석기법의 제약이나 한계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들이 복합적으로 생산, 무역,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계측에 있어서 정책의 인과성에 의문을 제기함.

- 또한 보고서의 제목에 ‘성과(performance)’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보고서의 취지에 적합하게 ‘PEM 모형을 활용한 새로운 실험(model exercise)’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함.

- 보고서에서 사용된 PEM의 제약이나 부여된 조건에 대한 기술을 각주보다는 본문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용에 대비하여 새로운 지표의 한계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일본은 새로운 지표의 개선점을 인정하고 보고서의 공개를 지지하지만, 이들 지표가 앞으로 PSE를 대체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각국은 상이한 정책환경 하에서, 식량안보·지역개발·환경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농정의 부분적인 성과만을 측정하는 이들 지표의 추가적인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임.

- 미국은 기존 지표들에 비해 새로 제시된 지표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다음날 모형의 한계와 제약사항, 그리고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점들을 본문(para 29)에 명시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회원국은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함.

Item 5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의 정책검토” 보고서 : 제안서

- GSSE에 관한 작업계획은 (1) GSSE에 어떤 정책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2) 각 정책을 GGSE 내에서도 H. 연구 및 개발, I. 농업학교, J. 검사서비스, K. 하부구조서비스, L. 유통 및 촉진, M. 공공 비축, N. 기타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3) 이런 정책들을 통해 제공되는 지지를 추정하기 위한 개념적인 토대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회원국은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GGSE의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문의를 하였으며, GSSE의 7가지 세분류의 추가 세분화 또는 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덴마크는 작업추진계획의 기간이 너무 짧은 점을 지적하고, 연구 및 개발(H), 제도적인 인프라(K)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네델란드는 농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GGSE의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와 농업분야의 기초연구관련 R&D를 동일한 연구 및 개발(H)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 환경관련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 농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농업외 분야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농업학교에 대한 지원(I)이 GGSE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함.
- 포르투갈은 하부구조서비스(K), 유통 및 촉진(L), 공공 비축(M), 기타(N)의 분류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복합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경우 중복 분류되거나 미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 개념,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 EU는 연구 및 개발(H) 목적의 다양성, 검사서비스(J) 대상과 주체의 상이함 때문에 세분화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정책의 평가, 각국의 농정비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입장임. 이 작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GSSE 체계의 개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
- 캐나다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을 너무 세분하는 것은 오히려 GSSE 관련 통계의 구축과 이들 정책들을 통해 제공되는 지지를

추정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

- 프랑스는 하부구조서비스(K), 유통 및 촉진(L), 공공 비축(M), 기타(N)의 항목은 항목간 구분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업외 분야의 공적 서비스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며, 공공비축의 저장비용은 MPS 산출시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함.
- 일본은 사무국이 보유한 자료 외에 GSSE 관련 여건이 상이한 회원국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 배포될 설문지 작성에 주의가 요하며, 공공 비축(M) 항목이 MPS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Food stam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이 국민의 안정적인 영양공급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보조 부분이 GSSE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작업에서도 GSSE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다만 작업일정상 제안서의 모든 사항들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해 보임.
- 이밖에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호주 등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추후 3월 15일까지 제출된 서면의견 포함)을 반영하여, 1단계(GSSE 개념 재정립), 2 단계(세부 항목별 분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회원국에게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의 협조를 당부함.

Item 6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보고서 : 공개 유보

- 이번 보고서는 2009-2010 OECD 농업위원회 사업계획하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된 연구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로써 background paper와 가나,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례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것임.

- 보고서는 농업GDP 성장이 빈곤감소의 주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도, 연구 대상국들의 빈곤감축이 큰 성과를 이룩했던 시기는 거시경제적 안정, 해외시장 및 대외무역의 점진적인 개방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며, 교육개선, 각종 규제 철폐 및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러한 경제적, 사회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농업의 성과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빈곤감축에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함.
- 네델란드는 보고서의 공개를 지지하지만, 농업성장과 빈곤감축 간의 인과성과 상관관계가 보다 정치한 계량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성장이 빈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하는 요인들 (multiplier effects)을 도출한 근거가 미흡하고, 개도국의 경우 농정의 주요목표로써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임.
- 프랑스도 농업성장과 빈곤감소의 인과성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기법의 개선과 계량분석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개도국들이 주로 포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석결과의 편의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론부분의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보고서의 공표를 지지하며, 프랑스의 제안은 새로운 별도의 연구를 제안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영국은 후속 작업에 대해 문의하면서, 관련 연구가 지속된다면, 다음 연구에서 이번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추후 3월 15일까지 제출된 서면의견 포함)을 반영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다음 회의(5월 APM)에 제출하기로 함.

Item 7 “개도국의 농정 선택” : ‘OECD 이사회의 소관하에 공개’에 앞서 사전논의

- Item 7a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연구” 보고서
- Item 7b “2007-08년 식량위기 이후의 개도국의 안정화 정책” 컨설팅 보고서
- Item 7c “개발도상국 투입재보조 사례 연구” 보고서

- 지난 회의에서 “개도국의 농정 선택”이라는 주제로 4개의 관련연구와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상기한 3개의 연구 결과가 논의되고, ‘개도국 농정의 분배효과 모형화’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된 다음, OECD 이사회의 책임하에 공개될 예정임.
-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연구” 보고서는 사례 국가별 농업 발전과 구조변화 경험과 및 이런 변화를 이끈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설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개도국의 빈곤극복이라는 단기목적과 발전이행이라는 장기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프레임을 제안함.
- “2007-08년 식량위기 이후의 개도국의 안정화 정책” 보고서는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정책적 대응방향(무역자유화와 시장을 통한 안정화정책과 무역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안정화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함.
- “개발도상국 투입재보조 사례 연구” 보고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농업정책 수단으로써 투입재보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개도국 투입재보조 사업에서의 시사점과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
- 지난 회의에서 개별 보고서별로 일차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프랑스, 호주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의 의견제시는 없었음.
- 프랑스는 농산물 가격급변으로 인한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한 후생변화는 가격변동성과 가격수준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하며, 시장의 통합정도에 따라 가격변동성에 대응한 재고관리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 중에 한 가지만이 효과적이라는 결론 도출에 의문을 제기함.
- 호주는 개도국에 대한 투입재 보조는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에 동의하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Item 8a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량모형 분석” 보고서 : 공개 승인

- 이 보고서는 농업분야 위험관리 작업의 일환으로,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외생 위험요인들이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임.
- EU는 생산량의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후나 자연재해 등의 외생변수들이 생산량을 통해 가격의 변동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또한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범지구적인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처럼, 지역 수준(유럽, 아시아 등)의 가격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차기 작업에서 구상되어지기를 희망함.
- 프랑스는 외생변수들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 가능성에 대해 EU와 견해를 같이 하며, 분석품목에 따라 관련된 정책의 효과로 인해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함. 특히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추진은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 및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외생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일례로 들면서, 모형분석과 통계자료의 제약 및 한계, 그리고 분석결과의 제한적인 해석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은 AGLINK-COSIMO는 경제부문간 연계성이 없는 부분균형모형이고, 이 연구에서도 부분 확률 시뮬레이션(Partial stochastic simulations)을 이용하여 외생변수의 효과만을 계측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총량모형 분석’이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임.
- 이밖에도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이 공개 지지와 함께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함.

Item 8b “농업부문 위험관리 종합보고서” : 공개 승인

- 이 보고서는 5개국(호주, 캐나다, 네델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과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분석한 농업부문 위험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와, 농가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 의사 결정과 정책 분석을 위한 미시 모델을 개발,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변동성에 대한 종합분석 등의 세 가지 부분을 종합하였음.
- 위험관리 사례연구에 참여한 호주, 캐나다, 네델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보고서의 본문과 부록에 자국의 정책에 대한 기술의 오류나 부적합한 표현, 잘못된 통계수치 등을 지적함(덴마크, 미국 포함).
- 캐나다는 농업인에 대한 위험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농업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지적함. 또한 개별 농업인의 위험에 대한 대처는 생산품목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다각화가 되어야 하며, 정책의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스위스는 농업인이 위험을 선물 및 옵션을 통해 이전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개별 농업인이 선물시장을 활용하여 위험관리를 하기에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인이 직접 선물 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프랑스는 가격 변동성 분석과 관련하여 생산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야 하며, 가격변동성을 농업부문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또한 AGLINK-COSIMO 모형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선물시장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사무국은 3월 9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서면의견 포함)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함.

Item 9 “2011-12 위험관리 작업계획” : 작업계획 보고

- 2011-12 작업계획은 기존에 수행된 농업위험의 체계적인 분류와 국가적

관리방안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동물질병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책까지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동물질병은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의 '비관세조치' 연구와, 기후변화는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의 '기후변화와 농업' 연구와, 식품안전은 농정시장작업반의 '범국가적 식품안전', '개도국 소농 위험관리' 등과 공동으로 수행(연구진 협력, 연구결과 공유)하며, 세계은행, FAO와도 협력할 계획임.

- 또한 사무국은 이미 실시된 선진국 5개 나라에 대한 사례에 더하여 중진국과 아프리카의 후진국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론적, 미시데이터 분석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력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의 금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각국의 재정지원 의사를 타진함.
- 스페인은 '기후변화 적응과 보험에 관한 위험관리' 연구에 자국의 경험과 관련 통계, 자체적인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다루는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물질병 관리' 연구의 수행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사례연구 관련 재정지원은 어려움).
- 네델란드는 개도국의 위험관리 사례연구는 지역의 이해당사자(local stakeholders)들의 주된 관심인 식량안보, 빈곤감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자국이 세계은행, FAO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또한 동물질병 관련 위험관리 연구는 자국의 가축백신접종 관련 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OIE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사례연구 관련 재정지원은 어려움).
-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심을 표명함 (사례연구 관련 재정지원은 어려움).
- 캐나다는 육류의 수출국이자 동물질병 관련 위험에 노출된 국가로써 '동물질병의 위험관리'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BSE와 FMD 등 가축질병에 관련된 축적된 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임. 또한

개도국 사례연구에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분석에 필요한 위험관리 관련 통계 및 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농업부문 위험의 주된 요인인 농산물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위험 관리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제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으로의 가격전이, 시장에서의 가격발견 메커니즘, 선물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이 위험관리 작업의 연구주제에 포함되기를 희망함. 개도국이 직면한 농업부문의 가장 큰 위험은 선진국(가격변동성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위험)과 달리 식량안보와 식품안정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진국 사례조사와는 구별되는 문제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기후변화와 생산량이 연관이 크며, 환경에 미치는 비가역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축질병 위험관리 연구에 관한 캐나다와 네델란드의 협조에 감사하고, 개별 농업인에 대한 외생적인 위험과 위험대처 방안 등 미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일본은 식량안보는 개도국뿐만 선진국에도 주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기후변화는 장·단기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제도적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가축질병과 관련해서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가축질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관세조치와 가축질병을 어떻게 연계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겠다는 입장임.
- 한국은 G20 보고서 관련, 가격변동성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 동의하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달라 국제적 공조방안이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보고서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함.
- 호주는 개별 농가의 위험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크며, 여기에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R&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문의함 (사례연구 관련 재정지원은 어려움).

- EU는 프랑스의 제안처럼 선물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개도국 사례조사의 경우 농가와 소비자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기후변화와 보험 관련 연구는 농가의 물리적·재정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개별 농가가 이용가능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관리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육류공급체인 전체를 시장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EU는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처럼 이 작업의 협조를 약속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할 의사를 밝힘.
- 스웨덴은 가축질병과 개별 농가의 위험대응에 관심을 표명함.
- 영국은 가축질병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할 의사를 밝힘.
- 미국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가축질병과 비관세조치 등 여러 작업반이나 서로 다른 연구간의 원활한 연계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존 OECD의 위험관리 연구에서 미시자료의 제약, AGLINK-COSIMO 모형의 한계 등으로 한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향후 작업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갈 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미국은 민간 농가의 위험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재앙수준의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OECD의 위험관리 연구와 이 분야의 협력을 기대함.
- 사무국은 각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이 제기한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험관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세계은행, FAO, OIE 등의 국제기구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답변함. 또한 회원국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함.
 - 사무국은 가격변동성은 주로 구조변화 작업에서 다루고 있으며, 위험관리 작업에 가격변동성을 포함하면, 너무 연구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개도국 사례연구의 경우,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OECD 내외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위험관리 작업의 세부·특정주제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AGLINK-COSIMO 모형의 개선(확률적 요소도입, 새로운 모듈 추가 등)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힘.

- 가축질병 위험관리와 비관세조치의 연계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규제가 육류 수출국과 수입국에 서로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 회원국은 3월 15일까지 서면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Item 10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 창설회의 요약 및 작업계획 제안” : 작업계획 보고

- 2010년 OECD 농업위원회 각료회의에서는 식품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였으며, OECD가 식품체인 관련 주요 주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이에 대응하여 농업위원회는 2011-12 작업계획에 정부, 산업계, NGO,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품체인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기초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네트워크를 2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농업위원회 작업계획의 정규 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힘.
- 본 문서는 2010년 12월에 개최된 ‘네트워크 일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네트워크가 직면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며,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작성됨.
- 네트워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6 가지의 활동을 제안함.
 - A1. 식품가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개선, A2.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 A3. 식품산업의 집약과 경쟁에 관한 연구, A4. 식생활·건강·영양 향상, A5. 폐기물관리와 혁신체계에 관한 활동, A6.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 식품체인의 영향력
- 네델란드는 식품가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개선(A1)과 식품산업의 집약과 경쟁(A3) 관련 네트워크의 활동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스페인은 식품체인의 투명성(A1)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자국에서 진행중인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제공할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노르웨이는 식품가격 모니터링과 투명성(A1), 친환경농산물(A2), 식품산업의 집약도(A3)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hollistic Approach)을 제안하고 자국의 관련 정보제공 의사를 밝힘.
- 미국은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활동들이 각 쟁점들을 서술적 방식보다는 분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지속가능한 식품체인(A2)과 식생활·건강·영양 향상(A4) 활동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식품가격 모니터링과 투명성(A1)에 관한 활동에 지원할 의사를 표명함. 반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활동계획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역할이 쟁점별로 정책적 이슈를 찾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회원국들의 농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 일본은 네트워크의 식품가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개선(A1) 식품산업의 집약과 경쟁(A3) 활동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와 협조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농가, 시장, 소비 각 단계의 가격전이에 대한 분석은 가격형성주체(price control power)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지속가능한 식품체인(A2)과 식품산업의 집약과 경쟁(A3) 활동과 관련해서는 종자와 비료를 포함한 투입재 산업 또한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함.
- 프랑스는 식품가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개선(A1)과 식품산업의 집약과 경쟁(A3) 활동은 통합하여 추진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작업에서 어떠한 분석방법을 사용할 계획인지를 문의함. 또한 지속가능한 식품체인(A2)과 식생활·건강·영양 향상(A4)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의 경우 이 분야의 통계나 정보의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함.

- 이밖에 캐나다(A6), 스웨덴(A3), 체코(A3), 멕시코(A4), EU 등은 네트워크 활동 중에 자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제시하고,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협력을 약속함.
- OECD BIAC(Business &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네트워크 활동 중에 소매부문을 포함한 하류의 유통채널(downstream distribution)에 대한 분석과 조사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A2)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고, 폐기물관리와 혁신체계(A5)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 식품체인의 영향력(A6)에 관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사무국은 식품체인 네트워크의 제안서대로 식품가격 모니터링과 투명성(A1)과 지속가능한 식품체인(A2)에 대한 활동을 우선 시작할 것이며, 다른 활동들 또한 여건이 가능한 시점에 개시할 계획임을 표명하고,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회원국의 담당자를 조속히 연결해 주기를 희망함. 다음 네트워크 회의는 9월 12-13로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중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

Item 11 “식품체인에서 식품낭비 관리” 보고서 : 제안서

- 이 보고서는 식품체인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능성을 점검하여 ‘식품낭비’의 범위와 현황을 파악하고,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식품시스템에서의 낭비분의 계량화를 위해 작성된 연구제안서임.
 - 식품낭비의 유형을 ‘손실(losses)’, ‘폐기(discards)’, ‘비효율적 이용(inefficient use)’ 등 세 가지로 구분함.
- 호주는 조사대상에 개도국과 선진국이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 다이어트나 영양 측면에서 소비자 패턴이, 개도국의 경우 기술상의 제약으로 인한 낭비가 각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은 자료수집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함.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소비량에 비해 공급량이 커지면서 낭비되는 식품의 양이 증가하고, 가격 또한 하락하여 효율적인 식품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서의 문제인식

에 따르면, 가격인상이 식품낭비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인 것으로 이해됨. 보고서의 내용이 이러한 단순한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기대함.

- 스위스는 식품의 손실이나 폐기 유형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임. 또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식품낭비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임.
- 노르웨이는 식품의 손실에 관심이 많으며, 자료를 제공할 의사를 표함. 활용가능한 통계의 제약이 예상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기대하고, 연구의 주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환경공동작업반에서 다루는 것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견해임.
- 프랑스는 식품의 비효율적 이용에 관한 분석은 사회학적 접근과 소비자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식품의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식품낭비의 현상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를 바람.
- 미국은 식품의 비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비만문제는 자국에서 민감한 이슈이며, 현실적으로 식품의 비효율적 이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표의 선정이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손실과 폐기,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식품의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자는 프랑스의 의견에 동의함. 또한 통계 및 자료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음식문화 개선 운동 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제시함. 식품 낭비는 식품생산 기반 보다는 소비자 및 분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배'에 초점을 두어 회원국 위주로 조사되는 것을 선호하는 점 표명
 - 미국이 식품의 비효율적 이용 조사는 민감한 이슈인 비만문제를 제외하고 식품 운송에 한정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은 회원국간 비만을 차이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식품낭비에 있어 비효율적 이용의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할 수

도 있을 것임을 언급

- 캐나다는 녹색성장전략 관련 연구(Value chain in industrial level)를 소개하고, 손실 관련 자료제공 의사를 표시함. 또한 미국의 식품소비 자료의 공유 여부에 관심을 표함.
- 이밖에도 EU, 네델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식품낭비와 관련된 자국의 연구결과와 통계·자료의 제공에 동의함.
- 사무국은 통계의 활용여부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회원국의 자료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 패턴, 손실과 폐기 유형의 낭비를 강조한 점을 반영하고, OECD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3월 15일까지 회원국의 추가적인 서면의견 제출을 요구함.

Item 12a “농산품 시장의 구조변화: 2011-12 활동 로드맵”: 작업계획 보고

- 이 문서는 “농산품 시장의 구조변화” 기존 작업들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2011년 작업계획과 2012년도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구상을 제시함.
- 캐나다는 2011년 하반기로 제시된 ‘농산품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종합 보고서 작업을 2012년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함. 또한 이 분야에서 향후 (2012년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세부연구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영향, 농산물 재고정책에 대한 재평가, 선물시장의 투명성과 투기행위에 대한 분석, 동물복지 등을 제시함.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이 농지와 높은 수준의 생산능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기존의 농업생산이나 세계 곡물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다른 견해를 보임.
- 프랑스는 가격변동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선물시장에서 투기가 가격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세부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정책수단 포함)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장기예측보다는 중기예측에 적합한 지금의 AGLINK-COSIMO 모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에너지나 투입재 부문에 대한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가 편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GLINK-COSIMO 모형의 보완이 어렵다면,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협소시장에 대한 분석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가격전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은 협소시장과 가격변동성이 수출국과 수입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관심이 많으며, 농산물 시장의 변동성 분석에는 AGLINK-COSIMO 모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프랑스)과 시장의 투명성(케나다), 가격전이(프랑스)를 주된 주제로 다루는 것에 동의함. 일본은 생산비용의 구조변화를 중기, 단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과 자원, 물, 환경 이슈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기를 기대함. 2012년 활동으로 바이오에너지와 설탕 등은 AGLINK-COSIMO 모형에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투기와 관련된 농산물의 가격변동성과 관련하여 최근 농산물시장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경향은 농업의 기본구조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보임. 농산물가격과 에너지가격의 연계성 분석에는 설탕도 대상으로 포함되기를 기대함.

Item 12b “협소시장과 가격변동성” 보고서 초안: 논의

- 8개 품목(밀, 옥수수, 쌀, 설탕, 쇠고기, 버터, 콩기름, 전지분유)의 시장 thinness의 장기 추세와 가격변동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 초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한국은 시장의 thinness와 가격변동성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와 가격변동성을 줄이려면 무역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 결론간의 불일치성을 지적하며, 결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다른 요소(환율, 재고 등)의 적용 가능성을 질문함.
- 이에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많은 회원국이 동조하고, 데이터 오류 등의 문제점 제기.
- 뉴질랜드는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많은 회원국이 지적한 무역 관련 내용도 문제없다는 반응.

- 사무국은 다른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데 대해서는 자료입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답변, 무역자유화로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해 실수를 시인하고 삭제하기로 함

Item 13 "농업지식시스템(AKS) 회의개최 안내": 2011.6.15-17일 개최

- 사무국은 농업분야 OECD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동 회의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이슈와 목적 관심사안, 국가별 농업지식시스템 내용과 국제협력내용"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응답을 오는 4월 1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Item 14 "농업녹색성장전략 보고서 논의": 사무국 구두보고

- 금번 보고서의 의미는 녹색성장전략을 출범하여(launch) 향후 사업예산계획에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것임
- MCM에는 녹색성장전략종합보고서 및 지표보고서, 그리고 부록으로 농식품 보고서 및 에너지 보고서가 포함될 것임, 이번에 추가된 농식품보고서 마지막 2개 Chapter는 3월 10일 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3월 3일까지 각국 의견을 접수하여 농식품보고서를 보완작성할 예정이며, 균형있고 forward looking 측면에서 접근할 것임. 현 보고서는 OECD국가 위주로 되어 있으나,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는 FAO와 협력할 것임.
- 스위스는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평가, 그러나 농업과 식품간에 내용상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 농식품 녹색성장지표는 아직 내용이 약하므로(weak)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며, 금번 보고서에는 지표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
- EU는 EU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녹색화 및 이노베이션을 강조하고 있음. 에너지 부문 보고서와 농식품보고서의 balance, 농식품 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농식품보고서는 초안 작성후 논의중이나, 에너지 보고서는 초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농식품 부분이 너무 부각되어 다뤄지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됨.

○ 프랑스는 보고서의 보완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내용 수정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컨센서스 형성도 요구됨. 또한 지표에서도 환경·사회이슈가 있음. 진행과정 측면에서 에너지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농업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음. 따라서, 보다 작업시간이 필요하고 컨센서스 형성도 요구되므로 MCM 상정을 하지말고 농식품보고서 공개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안함.

○ 호주는 문단 7의 두 번째 부분의 "Stronger efforts to foster well-functioning market", "subsidy" 관련문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MCM에 농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프랑스는 금번 호주의견으로 인해 향후 사무국의 보고서 보완작업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함.

○ 사무국 답변

- 농업과 식품간의 균형문제를 검토하겠음.

- 지표에서 농업환경지표는 수립되어 있으나, 그 외는 부족한 상황임. 지표 부분내용 전개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겠음. "nutrient balance" 지표를 종합보고서 헤드라인 지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종합 보고서 작성담당자에게 전달했음.

- 에너지분야 보고서는 IEA에서 준비중임.

○ 농업무역국장 발언

- (국가별 이견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보완작성하고, 컨센서스 형성에 노력할 것임.

- 농식품보고서에 개도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FAO와 협력할 것이며, 이 노베이션 측면도 보다 강화되어야 함.

- MCM에서 녹색성장전략보고서가 약 1시간 정도 논의될 것이며, 시각관계상 종합보고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함. MCM과 함께 열리는 포럼에서 'forward looking' 차원의 논의를 기대함.

Item 15 "G20 관련 농업분야 진행사항 정보제공"

- 프랑스 대표가 향후 G20 관련 활동 일정 및 내용을 소개하였으며(오는 6.22일 G20 농업장관회의 개최), “시장 투명성, 모니터링 협력, 지속가능 농업생산” 등에 논의중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사무국은 3월 중 G20그룹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 “농산물 시장 변동성 배경, 완화 수단, 미래시장안정을 위한 조치필요사항 등”을 포함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공공재고의 가격변동성 완충기능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점을 시사.